

<http://dx.doi.org/10.17703/JCCT.2016.2.2.17>

JCCT 2016-5-3

## “살아있는 글씨”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분석

### Analysis of Plan and Production for Documentary 'Preservation of Letters'

고훈준\*, 장경수\*\*

Hoon-Joon Kouh\*, Kyeong-Su Jang\*\*

**요약** 문명의 발달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책보다 더 친숙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 살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책 속에서 쉽게 글씨들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씨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글씨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글씨에는 관심이 없고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서, 글씨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글씨들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활판 인쇄소, 캘리그라피, 컴퓨터 폰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글씨들이 현대사회와 공존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글씨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한다.

**주요어** : 다큐멘터리, 캘리그라피, 활판, 폰트

**Abstract** As the change in the analog age to the digital age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people are living in a more friendly smart phone screen more books. In the past, people can easily see the text in the book, and now letters are disappearing from people's minds. And although they can see the letters easily anytime, anywhere using smart devices, they have no interest in the letters, they are interested only in information. So, the letters will disappear. However, there are people who try to keep the development of disappearing letters. In this paper, we are planning to produce a documentary about those people. We show that the letters survive in a modern society through Letterpress print shop, calligraphy, a computer font. And it seeks to inform that the letters are valuable.

**Key Words** : documentary, calligraphy, Letterpress, font

## 1. 서론

‘서걱서걱, 또각또각... 정성스럽게 쓰던 글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쓰던 글씨, 책에서 보던 글씨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책보다 더 친숙한 스마트 폰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예전에는 종이 속에서만 접하던 글씨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져만 가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게 글씨를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조합해 인쇄하던 활판 인쇄소뿐만 아니라 현대식 인쇄소 또한 더더

\*정회원, 경인여자대학교 영상방송과(교신저자)

\*\*정회원, 경인여자대학교 영상방송과

접수일자: 2016년 3월 15일, 수정완료일자: 2016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3월 30일

Received: 15 March, 2016 / Revised: 20 March, 2016

Accepted: 30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hjkouh@kiwu.ac.kr

Dept. of Video Broadcast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옥 같 곳을 잃어가고 있고 글씨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글씨들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글씨들이 현대 사회와 공존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글씨의 소중함을 말하고자 한다.

다큐멘터리(Documentary)]라는 용어는 1930년대 영국의 영화감독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 [1]이 1926년 2월 8일 <뉴욕 선>(The New York Sun) 지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사실에 입각한 촬영 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기록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4]. 즉, 허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인물이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주는 논픽션(nonfiction) 영상물이다. 단순한 기록 필름이 아니고 예술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공유하는 장르로 현상이나 사실을 이해하거나 알리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글씨”라는 제목으로 글씨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기획 구성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 II. 영상 기획 구성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양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 시청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 다큐멘터리로 화면의 의미를 내레이션으로 설명하고, 중간 부분의 적절한 곳에 인터뷰를 삽입하여 연출자의 의도를 설득적으로 전달하려는 해설 양식[2,3]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로 구성한다.

### 1. 서론

북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책 또는 종이를 통해 글씨들을 접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쉽게 글씨를 접하지만 글씨에는 관심이 없고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서 글씨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영상과 인터뷰와 함께 문제점을 제시한다.

## 2. 본론

활판인쇄소, 캘리그래피, 컴퓨터 폰트를 통해 사라져가는 글씨들이 현대 사회와 공존하며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한다.

### 2.1 활판인쇄 - 아직까지 이어지는 역사

파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활판 인쇄소를 보여준다. 활판으로 인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활판 공방과 활판 인쇄술을 소개한다. 공방에 계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활판 인쇄술의 가치에 대해 들어본다. 또한 활판 인쇄가 사라지지 않고 현대 시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 2.2 캘리그래피 - 다시 살아나는 글씨

손글씨의 대표적인 캘리그래피(Calligraphy)를 소개하고 최근 영화 포스터, 제품, 기업로고, 방송 타이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캘리그래피가 각광받고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글씨들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 2.3 폰트 - 현대와의 공존

전자기기에서 사용하고 폰트에 대해 소개하고, 폰트 개발자와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인들이 동일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글씨 처럼 자신만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게 표현하는 글씨로 다양한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글씨들이 현대와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결론

‘아직 끝나지 않은 숨’이라는 소재목으로 글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숨 쉬고 있으며 더 아름답고 편리한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준다.

## III. 다큐멘터리 영상 분석

영상은 Sony HXR-NX3 캠코더를 사용하여 Full HD(1920\*1080)으로 촬영하였으며, Premiere Pro CS6[7]를 이용하여 10분 정도로 편집하였다. 타이틀 및 이미지 편집은 포토샵CS6와 일러스트레이터CS6를 사용하였다.

## 1. 타이틀 제작

영상의 메인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은 영상주제가 잘 연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 [6]를 이용하고, 여백을 충분히 살리고 글자가 한 글자씩 쓰는 듯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제목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CG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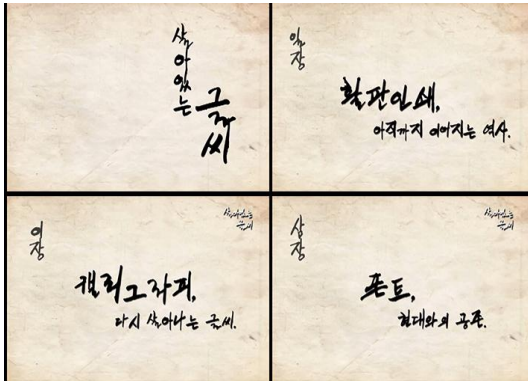


그림 1.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영상 타이틀 디자인  
 Fig 1. Video title design using calligraphy

타이틀 로고는 캘리그래피 글씨체에 그림자 효과로 디자인하여 그림 2 와 같이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내레이션의 자막은 왼쪽에 사각형 박스로 만들어 안정감이 있고 영상에 거슬리지 않고 어울리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림 2 . 메인 타이틀 로고와 자막 배경의 형태와 위치  
 Fig 2. Form and location of main title logo and subtitle background box

## 2. 영상편집

영상편집은 서론, 본론, 결론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편

집을 하였으며 본론은 일장, 이장, 삼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서론과 본론에서는 영상을 통해 상황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 내용의 설득력을 높였다.

### 2.1 서론

그림 3과 같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의 영상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책을 통해 글씨를 접하는 경우는 줄어 들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글씨에는 무관심해지고 있어 글씨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그림 3. 책을 읽는 모습과 스마트 기기로 글을 읽는 모습  
 Fig 3. People reading an article in a book and people reading an article smart devices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글씨를 접하는 방법이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접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림 4. 글씨를 접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 인터뷰  
 Fig 4. People interview about how to contact letters

### 2.2 본론

일장에는 파주 활판 인쇄소를 통해 과거의 글씨들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계승되어 이어오고 있음을 활판 공방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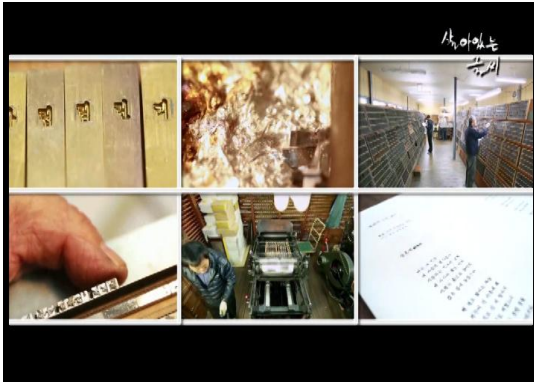


그림 5. 활판 인쇄를 하는 과정  
Fig 5. Process for letterpress print

그림 5는 활판 인쇄를 하는 과정을 여섯 분할로 나누어 썸네일 영상으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전체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장인들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활판 인쇄기술의 가치와 현대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림 6. 활판인쇄소 장인들의 인터뷰  
Fig 6. Interviews for the artisans of letterpress print shop

이장에서는 캘리그래피가 아름다움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Kalligraphia' 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핸드레터링 기술임을 설명하고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CG를 사용하여 편집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캘리그래피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림 7. 인터뷰와 CG를 이용하여 캘리그래피를 설명  
Fig 7. Describe Kalligraphy using CG and interview

삼장에서는 컴퓨터 폰트를 혜음 디자인 회사를 방문해 폰트의 개발과정과 컴퓨터 폰트들이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되고 기업 전용 폰트가 개발되어서 사용됨으로써 글씨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존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림 8. 인터뷰를 통한 폰트의 진화 설명  
Fig 8. Describes the evolution of the font using interviews

폰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림 9와 같이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9. CG를 이용하여 폰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  
 Fig 9. Describes the process that font is created using CG

### 2.3 결론

결론에서는 본론의 입장, 이장, 삼장의 내용을 정리 하면서 글씨들이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사람들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림 10에서는 신문, 활판 인쇄기술로 출판한 책, 캘리그라피 기업 로고, 전자기기 폰트를 4분할로 보여주면서 글씨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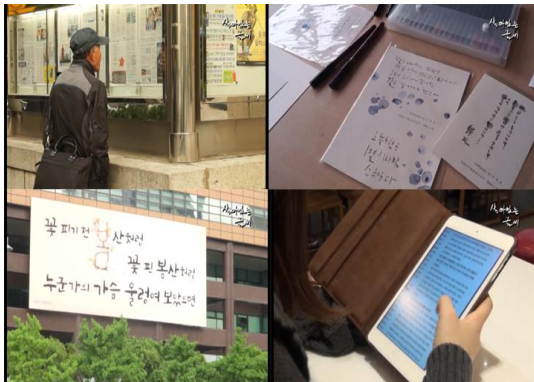


그림 10. 글씨들이 이용되는 4가지 예를 4분할 화면으로 구성  
 Fig 10. Four split-screen configuration for four examples

## IV. 결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책과 같은 종이와 접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글씨들이 사라지고 있다. 친숙함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글씨. 너무 친숙해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글씨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귀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이 귀한 글씨를 소재로 글씨들이 현대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글씨를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통해 글씨들이 다양한 변신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이야 말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의미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활판 인쇄소와 폰트회사와의 촬영으로 전문성을 높였고, 활판 인쇄소와 폰트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활판 인쇄와 폰트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후반작업에서 타이틀 로고는 영상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러운 캘리그라피 디자인으로 사용되었고, 타이틀과 영상의 일부분을 CG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하여 영상의 지루함을 없앴다. 인터뷰 자막은 일반적으로 영상 하단에 가로로 배치하고 내레이션 자막은 영상 왼쪽에 사각형 박스로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이질감은 없고 구별은 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한 편집 요소들이 ‘살아있는 글씨’ 영상의 차별화된 요소이다.

## References

- [1] Francois Niney, Le documentaire ses faux-semblants, Yerim Publishing, 2012.
- [2] Alan Rosenthal, “Writing,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s and Videos,” Communication Books, 2002.
- [3] Park In Kyu, Ha Ju Young, The Understanding of Digital Television Production, Ilbit Publishing, 2009.
- [4] Jo Se Young, “Production Report of Documentary Feature <Let’s Dance> – from the perspective of director –,”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6.
- [5] Renov, Michael, ‘Animation: Documentary’ s Imaginary Signifier, ‘lecture delivered at University of Westmisister, 6 December, 2004.

[6] Im Hyun Bin, "Study on Calligraphy expression according to modern transformation of Munjado," Illustration Forum, Vol.40, pp.37-46, 2014.

[7] Adobe Help, <http://www.adobe.com>.